

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력 불어넣다

올해 3분기 지역 건설업체 수주·자재 사용 2000억원 넘어… 지역업체 참여·자재 사용 지속 확대

전주시가 침체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설한 지역건설지원팀이 경제활력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올해 3분기 공공 및 민간분야 지역업체 하도급 금액은 1095억원, 지역 자재 사용 금액은 1029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하도급 금액 732억원, 자재 사용 금액 560억원과 비교해 크게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7월 지역건설지원팀을 신설한 후 관내 대형건설현장 및 시공사 본사 방문 등 현장 행정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시는 올해 하반기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추진계획을 수립 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 구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MOU체결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간담회 개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함



전주시가 침체한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설한 지역건설지원팀이 경제활력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께 지속적인 건설 현장 및 시공사 본사 방문을 통해 지역업체 참여 및 지역 자재 사용을 적극 요청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팀이 신설된 후인

올해 3분기 지역업체 하도급 금액과 지역 자재 사용 금액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풀이했다.

이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시는 자체 발주 사업에 대해 의무 할당 외에 추가적인 지역 자재 및 지역업체 하도급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민간공사 역시 본사를 찾거나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갈 방침이다.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장은 “전주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도 대형건설회사 본사 방문 등 현장관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내년에는 더 많은 참여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지역업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협력 기반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왕실 복식 권위·아름다움 조명

전주시 어진박물관, 내년 2월 8일까지 기획전 ‘결’ 개최

전주시 어진박물관은 20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박물관 지하 1층 열린마당에서 왕실복식 기획전 ‘결’을 운영한다.

이번 기획전은 비단·빛·시간의 세 가지 주제로 신규 소장품인 ‘이왕가사진첩’과 함께 무형문화유산 침선장들이 제작한 조선 왕실 복식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왕실 복식에 사용된 직물, 조선시대에 왕실 복식의 정보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도설, 대한제국 황실의 흑백사진 등을 통해 왕실 복식의 권위와 아름다움을 조명한다.

하재식 전주시 국가유산관리과장은 “APEC 등을 계기로 한복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복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꼽히는 왕실 복식을 ‘결’이라는 주제로 풀어 새로운 시각에서 소개하고자 한다”며 “이번 전시가 한복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어진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63-281-8680)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안전 문화 확산 ‘맞손’

전주시-쿠팡이츠서비스, 협약

전주시가 지역 배달종사자의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쿠팡이츠서비스와 손을 잡았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9일 전주시청에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와 배달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주시에서 활동하는 약 2000여명의 배달종사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함께 안전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쿠팡이츠서비스와 연계해 2024년~2025년에 걸쳐 이륜차 무상점검을 통해 200명의 배달종사자(1인당 10만 원 상당)에게 제동·조향장치·타이어 등 주요 장치 맞춤 점검 서비스를 추진한 바 있다.

앞으로 시는 이동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륜차에 대한 무상점검을 지속·확대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교육 캠페인을 반복해서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노동자들이 잠시나마 더위와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안전쉼터 운영 및 확대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고민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존 정책이



우범기 전주시장은 19일 전주시청에서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와 배달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약속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쿠팡이츠서비스는 배달업계 최초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ISO-45001)을 획득하는 등 라이더 안전 정책을 선도해 왔다.

최근에는 서울·경기·인천·청주·대구·창원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 계

절별 안전 점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까지 누적 5000여 명의 배달파트너가 무상점검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전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 배달파트너의 안전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함께

지속가능한 안전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번 협약은 배달노동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받는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전주시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162명(지방세 149명, 세외수입 1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명단공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공개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근거해 선정됐으며, 6개월간 납부 촉구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지 않은 체납자에 한해 확정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

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또는 사업장 소재지) △체납액 등이며, 전주시 홈페이지 및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고액·상습 체납자는 조속히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 수행기관 모집

전주시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2026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사업의 수행기관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고 동료 상담가 양성과정 등을 수료한 장애인 상담가가 동일한 장애 유형을 가진 참여자와 △동료상담 △정보공유 △자조모임 운영 등을 통해 장애인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주사무소가 전주시에 소재하고 중증장애인 동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역량을 갖춘 기관 중 2개소 이내의 수행기관이며 2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주시 장애인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28, 전주시청 별관 4층)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립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